



宋書 夷蠻列傳 東夷

南朝의 劉宋(420~479)의 정사. 487~488년 南齊의 武帝의 명을 받아 沈約이 편찬.

고구려국

- 高璉(장수왕, 413~480) 재위 시기의 송과 고구려의 교류사를 기술. 생활상이나 제도 등을 다루지 않음.
- “동이 고구려는 현재 漢代의 요동군을 지배하고 있다.”
- 진 안제 때 장수왕을 使持節 都督營州 諸軍事 征東將軍 高句麗王 樂浪公으로 삼음.
- 송의 고조가 왕위에 오른 뒤 이전의 칭호는 유지하고 정동대장군으로 격상.
- 422년에는 散騎常侍와 督平州諸軍事라는 벼슬을 추가.
- 438년 선비족이 세운 北燕의 왕 馮弘이 索虜(拓跋族)의 공격을 받아 고구려로 피신하여 송나라로 가기를 요청. 송나라는 사신(王白駒, 趙次興)을 파견하여 고구려에 이들을 송나라로 보내줄 것을 요청. 하지만 장수왕은 이들이 송나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 부하(孫漱, 高仇)를 시켜 이들을 죽임. 王白駒, 趙次興은 孫漱, 高仇를 공격하여 사로잡거나 죽임. 장수왕은 王白

駒, 趙次興을 체포하여 송나라로 압송. “황제는 멀리 떨어진 나라의 뜻을 거슬리고 싶지 않아 왕백구 등을 옥에 가두었다가 놓아주었다.”

-장수왕은 해마다 사신을 파견. 439년 북위를 공격하고자 말을 바치라는 詔書를 내리자 말 8백필을 바침.

-463년 “짐의 조정에 충성을 다하여 포악 잔인한 무리를 없애는데 뜻을 두었고, 사막의 나라와 교류하여 짐의 덕화를 크게 떨치었소. 마땅히 벼슬을 더하여 절의를 드러내려 하오.” 장수왕에 車騎大將軍과 開府儀同三司라는 작위를 내림.

백제국

-“백제국은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1천여리 밖에 있었다. 그후 고구려는 요동을,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라 한다.”

-서진은 416년 백제왕 餘暎(餘腆의 오기, 전지왕, 405~420)을 使持節 都督 百濟諸軍事 鎮東將軍 百濟王으로 삼음. 이후 진동大장군으로 승격.

-425년 조서에서 “백제왕은 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여 바다 건너에서 정성을 다하였소. 먼 지방의 왕위를 계승하고 조상의 덕을 이어 받아 닦음에 의를 사모함이 이미 드러났고 가슴에는 붉은 정성을 품었소. 그러므로 왕위를 잇게 하여 그 지방을 맡기노니 동방에서 우리 조정의 藩屏이 되어 정사를 부지런히 하여 선대의 공업을 떨어뜨리지 말도록 하시오.”

-458년 餘慶(蓋鹵王, 455~75)이 사신을 보내어 “신의 나라는 대대로 특별한 은혜를 입고 문무의 훌륭한 신하들이 대대로 조정의 관작을 받았습시다. 行冠軍將軍 右賢王 餘紀 등 11명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하여 높은 지위에 나아감이 마땅하오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가엾게 여기시어 모두 관직을 내려 주십시오.”

南齊書 東南夷列傳

남제서: 537년 양나라의 소자현이 편찬. 南朝 제나라 24년(479년~502년)의 역사를 서술.

고구려

-“동이 고구려국은 서쪽으로는 魏 오랑캐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北魏(386-534): 선비족 탁발부에 의해 화북지방에 건국된 나라

-송나라에서 받은 관직을 그대로 이어 받았음을 기록.

-제가 건국된 지 3년이 지난 481년에 사신을 보냄. 제의 통제를 받지 않음.

-주로 북위와 교류를 한 것으로 보임. “위 오랑캐는 여러 나라의 사신 관저를 두었는데, 제나라 사신의 관저를 제일 큰 규모로 하고 고구려는 그 다음 가게 하였다.” 북위의 대외관계에서 고구려가 차지하는 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

-489년 위의 元會에서 제의 사신과 고구려의 사신을 나란히 앉게 함. 이에 제의 사신이 항의: “우리들은 중국 임금의 명을 받들고 경의 나라에 왔소. 우리나라와 겨룰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위가 있을 뿐이오. 다른 외방의 오랑캐는 우리 기마가 일으키는 먼지조차 볼 수 없소. 하물며 동이의 조그만 貊國은 우리 조정을 신하로서 섬기고 있는데, 오늘 감히 우리와 나란히 서게 할 수 있소?”; “두 나라가 버금가는 오직 제나라와 위나라 뿐인데, 변경의 작은 오랑캐가 감히 신의 발꿈치를 밟고 있습니다.”

-그밖에 고구려인의 습속과 생활상을 소개. "오경을 읽을 줄 안다."

百濟

일부분이 유실. 이전 사서의 기록을 전제하기 않고 남제시대 당대의 사료에 의거하여 기술. 주로 양국 사이의 朝聘관계를 다룸.

(牟大) 東城王(479~501)의 表文. 주로 공을 세운 왕족 및 신하들에게 정식 관직을 제수해줄 것을 요청.

-예를 들면 495년 백제는 사신을 보내: 지난 庚午年에는 獫狁(북위를 지칭)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깊숙이 쳐들어 왔습니다. 신이 沙法名 등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역습케 하여 밤에 번개처럼 기습 공격하니, 匭梨(북위를 지칭)가 당황하여 마치 바닷물이 들끓듯 붕괴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쫓아가 베니 시체가 들을 붉게 했습니다. ... 지금 천하가 조용해진 것은 실상 沙法名 등의 꾀이오니 그 공훈을 찾아 마땅히 표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앞드려 바라옵건대 천운을 베푸시어 특별히 관작을 제수하여 주십시오."

-위의 화중지방에 위치한 백제 침입(?): "이 해에 북위 오랑캐가 또다시 기병 수십만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그 지경에 들어가니 모대가 장군 沙法名, 替首流, 解禮昆, 木干那를 파견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북위 오랑캐 군을 기습 공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獫狁, 匭梨는 북쪽의 오랑캐를 낮추어 부르는 말. 학계에서는 실제로는 고구려를 의미한다고 봄. 그렇다면 남제측의 오해.

加羅(伽倻)

-남제서는 중국 정사 중 유일하게 가야에 대해 별도의 傳을 마련

✓ -"가라국은 三韓의 한 종족이다." 479년 제에 사신을 보냄. "널리 헤아려 비로소 조정에 올라오니, 멀리 있는 夷가 두루 덕에 감화됨이라. 가라왕 荷知는 먼 동쪽 바다 밖에서 폐백을 받들고 관문을 두드렸으니, 輔國將軍 本國王之 벼슬을 제수함이 합당하다."

梁書 동이열전

당 태종(629~636)에 姚思廉에 의해 편찬됨. 梁나라 56년(502~557) 간의 역사에 관한 기록.

고구려傳

-송서와 남제서가 당대의 기록으로만 이루어진 반면, 대부분의 내용을 이전 역사 기록(후한서, 삼국지, 송서, 남제서, 위서)으로부터 전래했음. 여기에 약간의 당대 기록이 추가됨.

-시조설화, 지리, 생활상, 관제 등을 다룸.

-동명왕 설화: "고구려는 그 선조가 東明으로부터 나왔다. ... 사람들의 성질은 포악하고 성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 본래 5족이 있으니 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습속이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국중의 부락마다 남녀가 밤마다 떼지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며. ...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東明 ... 형사취수제"

- 이어서 한나라 이후의 중국 왕조와 고구려 간의 관계사를 서술. 예컨대 242년 동천왕 때 위나라 毋丘儉의 침입으로 수도가 점령당하고 동천왕이 피신한 일을 자세히 서술.
- 고구려의 왕위 계승을 서술하고 그때마다 前왕에 내렸던 관직을 갱신했음을 서술.

백제

- 송서에 이어 백제의 요서 경략 사실을 지적.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핏나라 때에 이르러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 역시 요서, 평주 2군의 땅을 점거하여 스스로 百濟郡을 설립하였다.”
- 역시 사신을 파견하고 관직을 제수받아 갱신하는 과정을 서술.
- 생활습속 묘사: “백제인의 키는 크며 의복은 깨끗하다. ...”

신라

- 중국문헌에 신라가 최초로 등장. 그 이전에 진한이라는 명칭은 등장.
- 신라는 그 선조가 본래 辰韓의 종족이었다.
- * 신라의 기원: ① 삼국지 동이전에서 “古之亡人避秦役”이라 한 후 양서, 남사, 북사가 계승. 진이 망한 후 이주한 유민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② 隋書에서 관구검의 침입 때 옥저로 피신한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 ③ 변한의 후신. 고구려와 백제는 한 계통에 속한 것으로 보는 반면, 신라는 별도의 기원을 가짐.
- “진한은 처음에는 6국이었다가 차츰 나뉘어져 12국이 되었는데, 신라는 그 중의 한 나라이다. 그 나라는 백제의 동남쪽 5천여리 밖에 있다. ... 나라가 작아서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할 수 없었다. 521년에 성은 募, 이름은 秦인 신라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백제를 따라와 방물을 바쳤다.”

魏書 列傳

- 北齊 文宣帝 재위 시기에 魏收가 편찬(551~554). 북위 165년 동안의 正史.
- 열전 한쪽 국가의 정사가 이민족傳에 대하여 夷 또는 蠻이라는 명칭을 붙인데 반해.

고구려

- 대부분 당대의 견문과 교류에 의한 자료로 구성됨. 그만큼 북위와 고구려의 접촉이 빈번했다는 의미.
- 주몽 설화의 소개. 고구려의 시조 설화가 중국 정사에 최초로 기록됨. “고구려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선조는 朱蒙이라고 한다. 주몽의 어머니는 河伯의 딸로서... 그 나라 속언에 주몽이란 활을 잘 쏜다는 뜻이다.” 이민족 왕조의 특징.
- 장수왕 때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관직의 제수를 요청. 북위의 세조는 장수왕을 員外散騎侍郎 李敖를 파견하여 都督遼海諸軍事 征東將軍 領護東夷中郎將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에 제수함.
- 이오가 평양성과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한 뒤 남긴 고구려에 대한 인상을 기록.

-馮文通이 무리를 거느리고 고구려로 도망침. 사신을 파견하여 장수왕에게 문통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지만 장수왕은 그러겠다고 대답은 하고 실제로는 지시를 요청을 따르지 않음. 북위의 대신들 중 일부가 거병할 것을 제안했지만 포기하고 문통은 장수왕에게 피살됨.

-후에 북위의 顯祖가 장수왕에게 딸의 출가를 요구.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결국 요청에 따르지 않음.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제의 高帝에게 보낸 사신이 위나라 관리에게 체포됨. 북위는 조서를 보내 이를 힐책. “경은 越境外交하여 찬탈한 역적과 머리서 通好하려 하니, 어찌 이것이 변신으로서 절의를 지키는 도리이겠느냐!”

-491년 장수왕이 죽었을 때 북위의 고조는 동쪽 교외에 나가 舉哀하고, 사신을 보내 장수왕을 車騎大將軍太傅 遼東郡開國公 고구려왕에 추증하고 康이라는 시호를 내림. 519년 문자왕이 죽었을 때도 靈太后가 東堂에서 거애함.

백제

-기원과 생활상에 관한 약간의 내용. 나머지 대부분은 蓋鹵王이 북위의 孝文帝에게 보낸 내용으로 구성됨.

-개로왕은 고구려의 거듭된 침략으로 백제가 큰 위기에 처했음을 호소하면서 북위의 도움을 청함. 백제는 주로 남조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음. 이래적으로 請兵使를 파견. 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 일반적인 조공이 아닌 외교교섭의 목적의 사신 파견.

-북연의 멸망 이후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본격화됨. “추악한 무리가 점점 강성하여져 끝내 침략과 위협을 당하여 원한이 얽히고 전화가 연이은 것이 30여 년입니다. 물자도 다되고 힘도 떨어져서 자꾸만 쇠잔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천자의 인자와 간절한 공훈이 멀리라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면 급히 장수 한 사람을 보내어 신의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옛 堯임금과 같이 더 없는 성군도 남만을 舟水에서 쳐서 벌하셨고, 孟嘗君처럼 어질다는 사람도 비웃는 길손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씩 새어나오는 물이라도 마땅히 일찍 막아야 하니, 지금 취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뒷날 후회를 남기실 것입니다.”

-북위는 이러한 백제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 그러나 후일 계기가 마련된다면 협력할 수 있음을 암시: “고구려가 강함을 믿고 경의 국토를 침범하여 선군의 옛 원수를 갚는다면 백성들을 쉬게 하는 큰 가르침을 저버리고, 여러 해 동안 전쟁을 벌여 온갖 어려움이 국경 사이에 맺혀 있음을 알고 있소. ... 그러나 고구려는 선대의 조정에 변신이라 칭하며 職供하여 온 지 오래인지라 그대들과는 오래 전부터 틈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겐 아직 영을 어긴 허물이 없소. 경이 사신을 처음 통하면서 곧장 정벌하여 달라 요구하기에 얼마 동안 일의 시비를 따져 보았으나 사리에 역시 맞지 않았소. ... 이제 다시 짐의 뜻을 어길 것 같으면 과오와 허물이 더더욱 드러날 것이요. 뒤에 변명한다 하더라도 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니, 그 뒤에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토벌하는 것이 의리에 맞을 것이요. ... 이제 만일 조서를 따를 것 같지 않으면 경이 보내온 계책이 짐의 뜻에 합치하니 군대를 출동하는 일은 앞으로 멀지 않을 것이요. 군사를 미리 준비하여 함께 일어나도록 시기를 기다리면서, 때때로 사신을 보내어 저들의 정황을 속히 알려줘야 할 것이요. 군사를 일으키는 날 그대가 길을 인도하는데 앞장선다면 크게 승리를 거둔 뒤에는 元功의 상을 받게 되니 그 또한 좋지 않겠소.”

周書 異域列傳

-주서는 당 고조 武德 연간에서 당 태종 정관 2년(618~628) 사이에 편찬. 北周 25년(557~581)의 정사.

고구려傳

-중국과의 교빙의 역사는 아주 간략하게 다루어짐. 고구려 陽原王(545~59)과 平原王(559~590) 시기.

-대신 관제나 생활상에 대한 묘사는 전사의 기록을 전제하는 대신 당대의 지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百濟傳

-주 내용은 백제의 社會相. 전사에서 전제하지 않고 새로운 사료를 많이 포함. 여러 백제전 중 백제의 사회상에 관해 가장 높은 사료가치를 지님. 특히 남천 이후 사회상.

-“백제는 그 선대가 대체로 마한의 속국이며, 부여의 별종인 듯 하다. 仇台란 사람이 처음으로 대방에 나라를 세우니, 그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신라에 닿고...”

-백제의 왕의 호칭에 관해, 관제, 행정구역에 관해 귀중한 자료를 제공. “벼슬은 16品階가 있다. ...”

南史: 당나라 이연수가 남조의 宋, 齊, 梁, 陳의 역사를 편찬.

北史: 남북조 시대의 北魏, 東魏, 西魏, 北齊, 隋나라의 역사